

# 시민과 키운 천만송이국화꽃 “누락된 지방세 과세 예정”

### 익산시, 농기센터 · 지역화훼농가 · 국화분재연구회 1년간 준비... 보름 후 전국 공개

익산시민들이 봄부터 피워온 천만송이국화꽃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국화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8개소에서 열린다.

국화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화훼농가와 국화분재연구회(시민 전문가)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마지막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마무리 준비 중이다.

우선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19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직접 국화 조형물을 제작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1년 동안 8만여 점의 국화를 직접 생산 재배해 예산은 절감하고 국화작품 수준을 높여나갔다.

올해는 백제왕도문, 하트게이트, 미륵사지석탑, 대형풍차 등 중대형 조형물 100여점과 함께 생령나무 빛조형



물, 빗터널, 국화꽃 빛조형물 등 20점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화훼농가들은 계약재배를 통해 축제장에 전시될 화분 6만 여점을 납품하는 한편 타지역 국화 재배농가와 교류해 익산의 국화재배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3년의 기다림만큼 봄부터 축제 연출과 국화품종 선정, 사계절정원 조성을 위해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등 전국 9개 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니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우리 축제 기간과 개화 시기가 맞는

중만생종 국화 10여 품종과 다채로운 색상의 국화를 새롭게 도입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화분재연구회는 올해 100여명으로 회원이 증가하여 신규분재 전문가반을 새롭게 편성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작품수준을 높이고 있다.

분재전시관에는 국화분재연구회 전문가반과 일반회원이 출품한 목·석부작, 현애작, 연근작 등 총 200여점의 다양한 국화 분재작품이 전시될 계획이다.

분재작품은 국화분재연구회들이 1년 동안 재배한 것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출품된 작품 중 우수작품 13점을 선발해 농촌진흥청장상, 도지사상, 익산시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봄부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민·관의 노력 덕분에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 법인 일제조사

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친다.

시는 건축·증축·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500여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달 기초 선별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이달과 다음달 11월에 법인장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등 중점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취득세가 미신고된 신

축 또는 증축, 대수선 건축물과 준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가설 건축물 및 지목을 변경한 토지다.

대상은 익산시 관내에서 최근 3년내에 위와 같은 건축행위 등을 하고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법인이며 선별된 조사건은 218개 법인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법인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누락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미신고 가산세 20%) 등을 추가 부과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축제와 차별된 작은 페스티벌... 세계 이색 짬뽕체험

### 8-9일 군산 짬뽕거리에서

이번 주말 시간여행 축제와 차별된 작은 페스티벌이 군산시 짬뽕거리에서 열린다.

군산은 내륙과 해안이 어울어진 여러 음식들이 유명하지만 그 음식 중 도드라진 하나가 바로 짬뽕이다.

군산에는 유명한 짬뽕맛집이 많이 있지만 식당마다 짬뽕 맛이 천차만별이다. 폐지되고 고명을 얹은 짬뽕, 혼합과 조개가 산더미 같은 짬뽕, 달걀 프라이를 얹은 짬뽕도 있다.

짬뽕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인천의 짜장면처럼 중국에서 기원한 한국음식이라는 설이다.

산동성 지방의 음식인 초미면이 변형돼 시작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다양한 짬뽕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8일과 9일 군산 짬뽕거리에서 열린다.

특히,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짬뽕요리 경연대회와,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세계 이색 짬뽕체험

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식 짬뽕 등 세계 다양한 짬뽕을 직접 눈 앞에서 지켜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시간여행축제도 관람하고 짬뽕거리에서 준비한 작은 페스티벌도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세계의 여러 짬뽕을 직접 보고 즐기는 체험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시립도서관은 5일 군산시민들이 좋은 책을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사서들이 직접 책을 선정,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하고 밝혔다.

## 누구나 쉽게, 좋은 책을 쏙쏙!

### 군산시,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 운영

군산시 시립도서관은 5일 군산시민들이 좋은 책을 쉽게 접하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사서들이 직접 책을 선정,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하고 밝혔다.

북큐레이션이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독려하고자 다양한 대상 및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별해 안내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유아동자료실에서는 원화전시와 연계해 친구·우정·여행 등의 주제에 맞는 도서를 일반자료실에서는 감성·사랑 등 계절에 어울리는 도서를 선정해 전시한다.

늘푸른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을과 겨울에 맞는 도서를 설립도서관은 어린이 학습과 연관된 한글·우주·천체 관련도서와 성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리·유명작가특선·지나해 미래출도서 등을 전시한다.

또 산들도서관은 내대주 시인의 작품과 아바존 서점의 인생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금강도서관은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공룡·겨울·눈에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시민들의 유익하고 활발한 독서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다양하고 색다른 주제도서를 읽음으로써 꾸준한 독서생활을 유지하고 도서관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

군산시가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한다.

5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매입된 공공비축미 6,563.2톤(산물벼 8.31~11.30, 건조벼(10.11~12.31))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4.916톤)% 증가된 수치다.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풍종으로 산물벼(RFC), 건조벼, 친환경벼(정부양곡참고), 에프타(AT참고)로 보관된다.

매입가격은 건조벼가 수확기(10~12월)전국 평균 산지 쌀값, 조곡(벼 40kg) 환산가격으로 매입되며, 산물벼는 건조벼 매입가격·포장비용(757원/40kg)이다.

건조벼는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며 수분이 13.0% 미만인 경우 2등급을 낮춰 합격 처리한다.

중간정산금(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최종정산은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

또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동안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는 시 매입품종을 확인하고 각 매입 방법에 따라 납품해 주기 바란다”며 “농민들의 한해 결박이 만큼 최선을 다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454-3023)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